

# 한국에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 현황 분석

전윤숙\*  
ysjun@deu.ac.kr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1 일본 그림책 출판 시기 |
| 2. 연구방법  | 3.2 일본 그림책 작가    |
| 2.1 연구대상 | 3.3 일본 그림책 장르    |
| 2.2 자료분석 | 3.4 일본 그림책 주제    |
| 3. 연구결과  | 4. 나오며           |

주제어: 일본그림책( Japanese Picture Book), 번역서(Translation), 출판(publication), 현황분석(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장르(genre)

## 1. 들어가며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책을 가끼이하고 책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성인을 비롯한 아동의 교육은 물론 태아의 교육에 있어서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산모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태아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믿음으로 임신 중에 좋은 글이나 시를 읽거나 듣고, 좋은 그림을 보는 것을 태교의 일부로 강조하였다(오연수, 심향분, 2018). 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교육의 일부로서 책읽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유아를 둔 부모들 역시 가능한 일찍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sup>1)</sup> 이로 인해 유아들이 그림책을 처음 접하는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김정원, 남규, 서정숙, 2011).

그림책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되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1) 조해연(2007)은 0-1세의 자녀는 둔 부모들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성별과 학력에 따라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대졸이상의 학력일 때 출생이전부터,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하 학력일 때 만1~2세부터 그림책을 읽어주어야 한다고 답하였는데 이 두 집단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어야 하는 시기를 가장 빠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고 있다. 미국 소아과학회(AAP: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sup>2)</sup>에서는 두뇌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유아기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유아의 두뇌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발표하면서 책읽기가 유아의 지적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임영주, 2017; 정현희, 2017). 또한 그림책의 환상적인 내용은 유아의 상상력을 계발시키고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며(김영주, 1998), 언어발달에도 도움을 준다(공인숙, 김영주, 최나야, 한유진, 2013). 그림책은 유아들에게 있어 생의 최초 문학경험이다. 그림책을 통한 문학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유아가 삶의 지혜를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강민정, 2013). 이상의 내용과 같이 그림책이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 외에 그림책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도 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마쓰이 다다시(松居直)이다. 마쓰이 다다시(1990)<sup>3)</sup>는 그의 책 『어린이와 그림책』에서 유아에게 그림책은 ‘이롭다’ 라든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즐거움의 근원이라 하면서 그림책이 유아에게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장 의미 있는 가치임을 강조하였다. 유아는 그림책의 이야기 구성 그 자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다양한 정서, 그리고 언어 자체가 갖는 리듬, 소리의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강문희, 이혜상, 1998).

책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특성과 그림책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결합되면서 부모들의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동시에 유아에게 적합한 그림책의 기준이나 요건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한국에서는 문화 관광부와 한국 어린이 도서 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신문사들에서 해마다 유아를 위한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종상을 수상한 그림책의 출판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 그림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에 따른 그림책 출판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유아도서 출판시장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유아용 그림책의 대부분이 외국 번역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의 경우 문자보다는 그림을 통해

2) 미국 소아과학회는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유아의 두뇌 조직은 책을 읽어주는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수천 개의 두뇌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하며, 조직 간의 결합도 강해지고 동시에 새로운 두뇌세포가 형성된다고 발표했다.

3) 마쓰이 다다시(1990)『어린이와 그림책』에서 어른들이 욕심껏 내세운 잡다한 목적들은 아이에게 그림책 본래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습니다. 이유나 목적이 많을수록 그림책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림책이 어린이를 괴롭히는 도구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토리를 구성해내야 하며 동시에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의 다른 문학작품의 작가 층에 비해 그림책 작가 층이 두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창작되는 작품보다는 이미 출판되어 있는 외국 그림책을 번역·출판하는 것이 더 쉽고 그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창작물 보다는 외국 그림책의 번역 출판이 유아용 그림책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외국 그림책의 번역과정과 그림책의 수입 대상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 여러 나라의 그림책은 유아에게 여러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유아의 정서적, 언어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이경우, 1996). 번역을 통해 전달되는 다른 나라의 그림책은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전달함으로서 유아의 세계관과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주는 좋은 통로가 된다(오미형, 2007). 그러나 외국 그림책은 ‘번역’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의 경우 유아의 인지적, 심리적,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적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이를 점검하고 여과하는 과정이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언어의 구조가 단순하고 내용이 짧다는 이유로 번역의 과정이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한 여과장치 없이 번역되고 출판된다는 점이다(탁정은, 2002).

번역과정의 문제와 함께 그림책의 편파적인 출판 경향<sup>4)</sup> 역시 외국 그림책 위주의 한국 유아 그림책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김명순, 2000). 1990년대 이후 유아도서 출판시장에서는 외국 그림책이 무분별하다 할 만큼 많이 번역되어 출판되었으며, 특히 영국, 미국의 명작 그림책과 그림책 관련 상을 받은 작품을 중심으로만 번역과 출판이 이루어져 왔다(탁정은, 2002). 즉 번역서의 대부분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서양문학에 집중되어 왔다. 지리적, 문화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근접한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국가의 문학 번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유아를 위한 문학이 서양 중심으로 발달되고 출판물의 양과 질에 있어서 서양이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양권에서 일본의 출판문화와 유아문학의 수준은 서양에 그것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이전 까지의 유아 출판물 시장에서 일본 문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본은 같은 문화권을 가진 정서와 문화, 특히 인물의 외모에 있어 차이가 없어 이질감이 적다는 장점(고선주, 2011)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의 역사성에 기인한 문화교류의 단절로 인해 일본 유아 문학작품이 소개

4) 2005년 1월 셋째 주 교보문고 유아도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0세에서 7세 대상 도서의 베스트셀러 중 75%가 번역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일본과의 문화교류는 1998년 10월 한국정부의 1차 일본 문화개방에 따라 가속화되었으며, 일본 문학의 출판은 9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봄을 일으켰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출판업계 통계에 따르면 번역서 중에서도 일본 번역서의 출판 비중은 다른 외국 번역서와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났다. 2016년 보고에 따르면, 일본 번역서의 출판은 미국 번역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sup>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그림책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그림책은 문화와 외모, 정서의 유사성으로 인해 서양의 그림책에 비해 한국 유아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일본 그림책 역사가 실제로 매우 길고 작가 충도 두터워서 우리나라 출판업계에서 좋은 번역 그림책의 자원으로 수용되었다(김경연, 박정선, 최영미, 최윤정, 최정선, 2006).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12년 아동부분 출판통계에 따르면 신간발행 부수 7,495종 중 번역서가 2,002종으로 전체 발생 부수의 26.7%를 차지하고 있다. 번역서 전체 2002종 중 미국 서적이 631종으로 번역서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서적이 362종(18.1%), 영국 서적이 290종(14.4%), 프랑스 서적이 264종(13.1%)을 차지하고 있다.<sup>6)</sup>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에 유아 그림책 출판이 활발해지면서 비약적으로 서양의 번역서 출판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비평이나 연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일본 그림책이 유아용 문학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 그림책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후지모토 지도세 藤本智登世, 2011). 번역서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용 번역서에 대한 것이어서 유아용 문학의 번역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유아 문학 번역서에 대한 연구들 역시 대부분 영어권 번역서에 관한 연구로 영어권 다음으로 많이 출판되고 있는 일본 유아문학의 번역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 유아문학 번역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박세은, 2013).

이제까지 이루어진 일본 유아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행정(2011)은 일본 아동문학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분석하였으며, 문성주(2012)는 미야자와 겐지의 아동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번역 전략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후지모토 지도세(2012)는 일본 창작 동화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표현의 문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번역의 과정과 표현상의 차이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일본 문학작품 자체에 대한 검토나 점검, 그리고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5) 대한출판협회(2016).<http://www.kpa21.or.kr>

6) 대한출판협회(2012). 2012년 출판통계(종수 및 부수) 및 번역 출판 현황

지지 않고 있다. 또한 위 연구 모두 아동문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아용 문학인 그림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출판되어 한국의 유아들에게 친숙하게 소개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선호되고 일본 그림책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유아용 그림책에 있어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 일본 그림책의 출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그림책에 대한 분석은 전반적인 유아용 그림책에 대한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더불어 일본 그림책 중 어떤 유형이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가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된 유아도서의 현황을 알아보고 번역된 일본 그림책의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의 출판 시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의 작가는 누구인가?

연구문제 3.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의 장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의 주제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에 출판된 유아용 그림책 중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 예스 24,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로 선정된 일본 그림책 75권이다.

한국에서 선호되는 일본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최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요 서점 매출 순위(한국출판 저작연구소)의 결과에 따라 국내 매출 1~3에 해당하는 온라인 서점을 선정하였다.<sup>7)</sup> 이에 교보문고([www.kyobobook.co.kr](http://www.kyobobook.co.kr))와 예스24([www.yes24.com](http://www.yes24.com)) 그리고 알라딘([www.aladin.co.kr](http://www.aladin.co.kr))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온라인 서점에

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의 주요 서점 매출액 순위에 따름

서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발표한 유아부분 월별 베스트셀러 1위~100위와 스테디셀러 1위~1000위에 선정된 도서들 목록을 수집하였다.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모두 수집함으로서 연구 실시 당시 인기 있는 책들과 연구 실시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어 왔던 책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었다. 수집된 목록에서 일본인 작가가 지필 한 작품을 선별하였다.

세 곳의 온라인 서점 유아부분 베스트셀러를 조사 한 결과 총 2,640권의 도서 목록이 수집되었고 그 중 일본작가가 집필한 그림책은 총 58권이었다. 세 온라인 서점에서 월별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일본 그림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일본 그림책>

월별	도서명	국내 온라인 서점		
		알라딘	예스 24	교보 문고
10회 이상	おまえうまそだな (고녀석 맛있겠다 12권세트)		○	
	うみの100かずだてのいえ (바다100층짜리 집)			○
	100万回生きたねこ (100만번 산 고양이)	○		
	100かずだてのいえ (100층짜리 집)	○	○	○
	りんごがドスン (사과가 쿵)	○	○	
	ちか100かずだてのいえ (지하 100층짜리 집)	○	○	○
	そらの100かずだてのいえ (하늘100층짜리 집)	○	○	○
5회 이상 ~	おつきさまこんばんは (달님안녕)	○	○	
	おつきさまこんばんは 시리즈 북세트	○	○	
	ゆびたこ (손가락 문어)		○	
	おって!きって!かざろうきりがみ (신기한 종이 오리기)		○	
10회 미만	教室はまちがうところだ (틀려도 괜찮아)		○	
	おまえうまそだな (고녀석 맛있겠다 12권세트) *	○		
5회 미만	ノラネコぐんだん きしやぼっぽ (기차가 덤벙덜컹 )	○		
	까만 크레파스와 하얀 크레파스	○	○	
	ちょうどよ (나비)	○		
	わたしのじてんしゃ (나의 자전거)	○	○	
	なかやみわ 10권 세트		○	
	ぼくがラーメンたべてるとき (내가 라면을 먹을 때)	○		
	てつぞうはね (내 고양이는 말이야)	○		
	そらまめくんのベッド (누에콩의 침대)		○	
	눈 오는 날의 생일	○		
	динぐりむらのおまわりさん (도토리 마을의 경찰관)		○	

5회 미만	珉ぐりむらのあそびやさん (도토리 마을의 놀이가게)		○	
	珉ぐりむらのぼうしやさん (도토리 마을의 모자 가게 )		○	
	珉ぐりむらのだいくさん (도토리 마을의 목공소)	○	○	○
	珉ぐりむらのぱんやさん (도토리 마을의 빵집)		○	
	珉ぐりむらのほんやさん (도토리 마을의 서점)		○	
	珉ぐりむらの珉ぐりえん (도토리 마을의 유치원)		○	
	ねえ,しってる? (동생이 생긴 너에게)	○		
	리틀 산타		○	
	メリ-크리스마スおはがみさん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	
	うみの100かうだてのいえn(바다 100층짜리 집) *	○	○	
	100万回生きたねこb(100만 번 산 고양이) *		○	
	ノラネコぐんだん そらをとぶ (비행기가 부웅부웅)	○		
	100かうだてのいえ 숫자카드	○		
	ノラネコぐんだんパンこうじう (빵공장이 들썩들썩)	○		
	ピヨピヨはじめてのキャンプ (빼악빼악 첫 캠핑)	○		
	りんごがドスン (사과가 쿵) *		○	
	サンタクロースってほんとにいるの? (산타 할아버지 정말 있어)		○	
	세상에서 가장 예쁜 종이 접기책	○	○	
	ゆびたこ (손가락 문어) *	○		
	ふしぎなカサやさん (신기한 우산 가게)	○		
	おって!きっと!かざろうきりがみ (신기한 종이 오리기) *	○		
	아이가 좋아하는 종이 오리기	○		
	ノラネコぐんだんアイスのくに (아이스크림이 꽁꽁)	○	○	○
	サトウヒロシ (아빠가 되었습니다)	○		
	オオカミグ-のはずかしいひみつ (엄마~아!)	○		
	おかあさんだいすきだよ (엄마가 정말 좋아요)	○		
	ゆびさきちゃんのだいぼうけん (엄지가 집을 나갔어요)	○	○	
	きつねのかみさま (여우랑 줄넘기)	○		
	우당탕탕 야옹이세트	○		
	울랄라 채소 유치원 세트		○	
	こねてのばして (주므로고 늘리고)	○	○	
5회 미만	줄려 줄려 크리스마스	○		
	채소 학교와 파란 머리 토마토		○	
	ノラネコぐんだん おすしやさん (초밥이 빙글빙글)	○		
	ケチャップマン (케첩맨)	○		
	크리스마스 세가지 선물 세트	○		
	펭귄 남매와 함께 타요 세트	○		
	ペンギンホテル (펭귄 호텔)	○		
	空とぶライオン (하늘을 나는 사자)	○		

\*표시는 중복된 그림책을 표시함.

온라인 서점 세 곳에서 12개월 동안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총 58권의 도서 중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작품은 총 7권이었으며, 이 중 세 곳의 온라인 서점에서 12개월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작품은 『100층짜리 집』, 『지하 100층짜리 집』, 『하늘 100층짜리 집』 3권이었다. 『사과가 쿵』은 두 곳에서만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다. 『고녀석 맛있겠다 12권 세트』, 『바다 100층짜리 집』, 『100만번 산 고양이』는 각각 한 곳의 온라인 서점에서만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다. 이중 『100층짜리 집』, 『지하 100층짜리 집』, 『하늘 100층짜리 집』, 『바다 100층짜리 집』은 『100층짜리 집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물로 세트구입과 단행본 구입이 모두 가능한 도서로 이 경우 세트보다는 단행본으로 많이 판매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고녀석 맛있겠다』는 12권 세트 판매가 인기가 있었다. 『사과가 쿵』과 『100만번 산 고양이』는 단행본 그림책이다.

다음은 3곳의 온라인 서점에서 12개월간 스테디셀러로 선정된 유아용 도서에 관한 것이다. 스테디셀러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팔리는 책이다(한국언론연구원, 1993). 즉 스테디셀러 그림책은 오랜 기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독자들에게 선택된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다(김민정, 현은자, 정지영, 2014).

####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 선정된 스테디셀러 일본 그림책>

도서명	국내 온라인 서점		
	알라딘	예스 24	교보 문고
おつきさまこんばんは (달님 안녕)	○	○	○
うみの100かいだてのいえ (바다 100짜리 집)	○	○	○
100かいだてのいえ (100층짜리 집)	○	○	○
りんごがドスン (사과가 쿵)	○	○	○
ちか100かいだてのいえ (지하 100층짜리 집)	○	○	○
おまえうまそくだな (고녀석 맛있겠다)	○	○	
おまえうまそくだな 특별 보급판 세트	○	○	
ぐりとぐらのえんそく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	○	
ノラネコぐんだん きしゃぽっぽ (기차가 덜컹덜컹)	○	○	
くれよんのくろくん (까만 크레파스)	○	○	
くろくんたちとおえかきえんそく (까만 크레파스와 놀이동산)	○	○	
くろくんとふしぎなともだち (까만 크레파스와 요술기차)	○	○	
ぼくがラ멘たべるとき (내가 라면을 먹을 때)	○	○	

おつきさまこんばんは 시리즈 보드북 세트	○	○	
どんぐりむらのおまわりさん (도토리 마을의 경찰관)	○	○	
どんぐりむらのあそびやさん (도토리 마을의 놀이 가게)	○	○	
どんぐりむらのぼうしやさん (도토리 마을의 모자 가게)	○	○	
どんぐりむらのはんやさん (도토리 마을의 빵집)	○	○	
どんぐりむらのほんやさん (도토리 마을의 서점)	○	○	
どんぐりむらのどんぐりえん (도토리 마을의 유치원)	○	○	
도깨비를 뺏아 버린 우리엄마	○	○	
とべッタ (뛰어라 메뚜기)	○	○	
말하면 힘이 세지는 말	○	○	
メリ-クリスマスおおかみさん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	○	
100万回生きたねこ (100만 번 산 고양이)	○	○	
ひよこさん (병아리)	○	○	
雨ニモマケズ (비에도 지지 않아)	○	○	
ノラネコぐんだんパンこうじょう (빵 공장이 들썩들썩)	○	○	
ピヨピヨハッピーバースデー (빼악빼악 생일 파티)	○	○	
ピヨピヨスマーマ-ケット (빼악빼악 슈퍼마켓)	○	○	
ピヨピヨメリクリスマス (빼악빼악 크리스마스)	○	○	
ゆびたこ (손가락 문어)	○	○	
苏和的白馬 (수호의 하얀 말)	○	○	
あさえとちいさいいいもうと (순이와 어린동생)	○	○	
とけいのほん(I) (시계 그림책 1)	○	○	
ふしぎなタネやさん (신기한 씨앗 가게)	○	○	
おりがみこうさ (신기한 종이 오리기)	○	○	
わにさんどきつはいしやさんどきつ (악어도 깜짝 치과 의사도 깜짝)	○	○	
ぼくのおふろ (어떤 목욕탕이 좋아)	○	○	
ぼくのふとん (어떤 이불이 좋아)	○	○	
ぼくのトイレ (어떤 화장실이 좋아)	○	○	
おかあさんないすきだよ (엄마가 정말 좋아요)	○	○	
はじめてのおつかい (이슬이의 첫 심부름)	○	○	
진짜 같은 곤충 종이 접기 도감	○	○	
最初の質問 (첫 번째 질문)	○	○	
ノラネコぐんだん おすしやさん (초밥이 빙글빙글)	○	○	
チキンマスク (치킨 마스크)	○	○	

おこだでませんように (흔나지 않게 해주세요)	○	○	
はりねずみのたまご (고슴도치 알)		○	
ねずみくんのチョッキ (그건 내 조끼야)		○	
그림 따라 한자 여행	○		
crow boy (까마귀 소년)	○		
いもむしれっしゃ (꿈틀꿈틀 애벌레 기차)		○	
おれはティラノサウルスだ (나는 티라노사우루스다)	○		
ルリユルおじさん (나의 르리외르 아저씨)	○		
きみはほんとうにステキだね (넌 정말 멋져)	○		
もりやまみやこ童話選 (노란 양동이)		○	
かくしたのだあれ (누가 숨겼지?(보드북))	○		
そらめくん オリジナルポシェットセット (누에콩의 침대)		○	
ゆきがやんだら (눈이 그치면)	○		
バムとケロのおかしいもの (바무와 게로 오늘은 시장 보러 가는 날)	○		
バムとケロのそらのたび (바무와 게로의 하늘 여행)	○		
100ヵル いたてのいえ 시리즈 세트	○		
はやくはやくっていわないで (빨리 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		
빵빵 무슨 일이야	○		
ピヨピヨもにのゆうえんち (삐악삐악 금 속 놀이동산)	○		
ピヨピヨおばあちゃんのうち (삐약 삐약 할머니 집)	○		
いきてる (살아있어)	○		
はみがきあそび (싹싹싹)	○		
おでてがでたよ (손이 나왔네)	○		
とけいのほん(2) (시계 그림책 2)	○		
試合で大活躍できる! 小学生の野球 とっておきのコツ50 (야구 잘 하는 50가지 비밀)	○		
女の子の遊べるおりがみ156 (여자들이 좋아하는 종이접기 156)	○		
예쁜 소녀 그림 그리기 디럭스	○		
あそべる、カッコイイ！ 5・6・7さいのおりがみ (5,6,7세를 위한 종이접기)		○	
ふしぎなキャンディ-やさん (우와 신기한 사탕이다)		○	
こんとあき (온지와 풍신이)	○		
となりのせきのますだくん (작공 바꿔주세요)			

ちょっとだけ (조금만)		○	
いえでだ ブヒブヒ (집 나가자 꿀꿀꿀)	○		
はじめてのせかくいちばんほん (처음 만나는 세계지도 그림책)		○	
けんかのきもち (친구랑 싸웠어)		○	
컬러만화 도라에몽 비밀도구 대백과	○		
なつちやうかもよ (콧구멍을 후비면)	○		
うまれてきた子ども (태어난 아이)	○		
1こでも100このりんご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		
だってだってのおばあさん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		○	
ひとくちぱくり (한입에 딥석)		○	
つみきのいえ (할아버지 바닷 속 집)	○		

3개의 온라인서점에서 1년 동안 꾸준히 인기를 모았던 스테디셀러 중 일본 그림책은 총 89권이었다. 이 중 온라인 서점 세 곳에서 모두 스테디셀러로 선정된 작품은 『바다 100층짜리 집』, 『지하 100층짜리 집』, 『100층짜리 집』, 『사과가 쿵』, 『달님 안녕』이 총 5권이었다. 이 중 100층짜리 집 시리즈 3권과 『사과가 쿵』은 베스트셀러에 이어 스테디셀러로도 선정되어 2018년 한 해 동안만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어 왔던 일본 그림책임을 알 수 있다.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58권의 일본 그림책과 스테디셀러로 선정된 89권의 일본 그림책 중 중복된 그림책을 제외하고 총 75권의 그림책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최종 연구대상 75권의 그림책의 제목과 관련 서지정보(김미정, 2016; 김민정, 정지영, 현은자, 2014; 정현희, 2017)는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 그림책 목록>

순번	서명	글작가	그림작가	출판년도	출판사	쪽	사이즈
1	おまえうまそうだな (고녀석 맛있겠다)	미야니시 타츠야	미야니시 타츠야	2004	달리	44	21.6x26.4
2	おまえうまそうだな 12세트	미야니시 타츠야	미야니시 타츠야	2004	달리	480	21x25.6
3	ぐりとぐらのえんそく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나카가와 리에코	야마와키 유리코	1994	한림 출판사	27	26.5x19.3

4	노라네코ぐんだん きしやぽっぽ (기차가 덜컹덜컹)	구도 노리코	구도 노리코	2015	책읽는 곰	40	22 x 22
5	くれよんのくろくん (까만크레파스)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02	웅진 주니어	34	27x19
6	くろくんたちとおえかきえんそく (까만 크레파스와 놀이동산)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17	웅진 주니어	44	30.3x22.5
7	くろくんとふしぎなどもだち (까만 크레파스와 요술기차)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05	웅진 주니어	32	26.5x19.2
8	ちょうどよ (나비)	에쿠니 가오리	마쓰다 나나코	2018	미디어 창비	32	21x27.9
9	わたしのじてんしゃ (나의 자전거)	마스다 미리	히라사와 잇페이	2018	이봄	40	19.6x25.3
10	나카야 미와 10권세트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16	웅진 주니어	330	18.8x25.7
11	ぼくがラーメンたべてるとき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하세가와 요시후미	하세가와 요시후미	2009	고래 이야기	44	2x26
12	そらまめくんのベッド (누에콩의 침대)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18	웅진 주니어	40	27.4x19.1
13	おつきさまこんばんは (달님 안녕)	하야시 아키코	하야시 아키코	2001	한림 출판사	18	19x21
14	달님안녕 시리즈 보드북 세트	하야시 아키코	하야시 아키코	2006	한림 출판사	80	18x18
15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사토 와키코	사토 와키코	1999	보림	32	26.6x19.
16	どんぐりむらのおまわりさん (도토리마을의 경찰관)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13	웅진 주니어	32	29.4x20.8
17	どんぐりむらのあそびやさん (도토리마을의 놀이가게)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16	웅진 주니어	51	29.6x20.7
18	どんぐりむらのぼうしやさん (도토리마을의 모자가게)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11	웅진 주니어	40	29.5x20.8
19	どんぐりむらのだいくさん (도토리마을의 목공소)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18	웅진 주니어	40	28.8x20
20	どんぐりむらのはんやさん (도토리마을의 빵집)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12	웅진 주니어	32	29.5x20.7
21	どんぐりむらのほんやさん (도토리마을의 서점)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16	웅진 주니어	40	28.5x20.5
22	どんぐりむらのどんぐりえん (도토리마을의 유치원)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14	웅진 주니어	40	28.8x20
23	ねえ, しってる? (동생이 생긴 너에게)	카사이 신페이	이세 히데코	2018	천개의 바람	44	23.3x26.6

24	とべッタ (뛰어라 메뚜기)	다시마 세이조	다시마 세이조	2000	보림	50	30.2x24.3
25	リトルサンタ	마루야마 요코	마루야마 요코	2017	미디어 창비	40	27x25.2
26	말하면 힘이 세지는 말	미야니시 타츠야	미야니시 타츠야	2015	책속 물고기	40	20.8x25.1
27	メリクリスマスおおかみさん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미야니시 타츠야	미야니시 타츠야	2002	시공 주니어	24	22.5x25.8
28	うみの100かいだてのいえ (바다 100층 짜리집)	이와이 도시오	이와이 도시오	2018	북뱅크	32	21x30.1
29	100万回生きたねこ (100만번 산 고양이)	사노요코	사노요코	2002	비룡소	31	26.3x25
30	100かいだてのいえ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이와이 도시오	2009	북뱅크	32	21.8x30
31	100かいだてのいえ 숫자카드	이와이 도시오	이와이 도시오	2018	북뱅크	200	14.7x30.4
32	ひよこさん (병아리)	소야 키요시	하야시 아키코	2013	한림	24	21x19
33	雨ニモマケズ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야마무라 코지	2015	그림책 공작소	40	20.2x29
34	ノラネコぐんだん そらをとぶ (비행기가 부웅부웅)	구도 노리코	구도 노리코	2017	책읽는 곰	40	22x22
35	ノラネコぐんだんパンこうじょう (빵공장이 들썩 들썩)	구도 노리코	구도 노리코	2015	책읽는 곰	40	22x22
36	ピヨピヨハッピーナースデー- (빼악빼악 생일파티)	구도 노리코	쿠도 노리코	2015	책내음	28	20x20
37	ピヨピヨス-ペマ-ケット (빼악빼악 슈퍼마켓)	구도 노리코	쿠도 노리코	2014	책내음	28	20x20
38	ピヨピヨはじめてのキャンプ (빼악빼악 첫 캠핑)	구도 노리코	구도 노리코	2018	책내음	28	20.7x20.8
39	ピヨピヨメリクリスマス (빼악빼악 크리스마스)	구도 노리코	구도 노리코	2014	책내음	28	20x20
40	りんごがドスン(사과가 쿵)	다다 히로시	다다 히로시	2006	보림	28	14.9x18.3
41	サンタクロスってほんとにいるの? (산타 할아버지 정말 있어)	테루오카 이쓰코	테루오카 이쓰코	2017	밝은미래	28	23.2x25.3
42	세상에서 가장 예쁜 종이 접기책	신구 후미야키	신구 후미야키	2018	노란우산	160	21x26
43	ゆびたこ (손가락 문어)	구세 사나에	구세 사나에	2014	길벗 어린이	32	21.4x26.6

44	苏和的白馬 (수호의 하얀 말)	오츠카 유우조	아카바 수에키치	2001	한림 출판사	48	21x29.7
45	あさえとちいさいいいもうと (순이와 어린동생)	쓰쓰이 요리코	쓰쓰이 요리코	1995	한림 출판사	32	27x19
46	とけいのほん(1) (시계 그림책 1)	구도 노리코	쿠도 노리코	2010	길벗 어린이	32	9.2x21.8
47	しげなタネやさん (신기한 씨앗 가게)	미야니시 타츠야	미야니시 타츠야	2016	미래아이	40	20.8x24
48	ふしげなカサやさん (신기한 우산가게)	미야니시 타츠야	미야니시 타츠야	2017	미래아이	40	20.8x24
49	おりがみ.こうさ (신기한 종이 오리기)	이시카와 마리코	이시카와 마리코	2016	길벗스쿨	60	18.5x17
50	아이가 좋아하는 종이 오리기	쓰지 미야비	쓰지 미야비	2018	작은우주	140	17.4x24.3
51	ノラネコぐんだんアイスのくに (아 이스크림이 꽁꽁)	구도 노리코	구도 노리코	2018	책읽는 곰	33	21x21
52	サトウヒロシ (아빠가 되었습니다)	사토 히로시	사토 히로시	2017	북스토리 아이	46	20.6x27.7
53	わにさんどきつはいしゃさんどきつ (악어도 깜짝 치과의사도 깜짝)	고미타로	고미타로	2000	비룡소	32	22.5x22.5
54	ぼくのおふろ (어떤 목욕탕이 좋아)	스즈키 노리타케	스즈키 노리타케	2011	노란우산	36	19x25
55	ぼくのふとん (어떤 이불이 좋아)	스즈키 노리타케	스즈키 노리타케	2014	노란우산	40	19x25
56	ぼくのトイレ (어떤 화장실이 좋아)	스즈키 노리타케	스즈키 노리타케	2012	노란우산	32	19.7x25.7
57	オオカミグ-のはずかしいひみつ (엄마~아!)	미야니시 타츠야	기무라 유이치	2018	책과 콩나무	32	19.5x26.9
58	おかあさんだいすきだよ (엄마가 정말 좋아요)	미야니시 타츠야	미야니시 타츠야	2015	길벗 어린이	24	20.8x24
59	きつねのかみさま (여우랑 줄넘기)	아만 키미코	사카이 고마코	2018	북뱅크	24	24.8x24.8
60	우당탕탕 야옹이 세트	구도 노리코	구도 노리코	2018	책읽는 곰	200	22x22
61	울랄라 채소 유치원 세트	와타나베 아야	와타나베 아야	2018	비룡소	192	18.5x17
62	はじめてのおつかい (이슬이의 첫 심부름)	쓰쓰이 요리코	하야시 아키코	1991	한림 출판사	32	27x19
63	こねてのばして (주무르고 늘리고)	요시타케 신스케	요시타케 신스케	2018	스콜라	32	22x17.5

64	ちか100かいいだてのいえ (지하 100층 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이와이 도시오	2010	북뱅크	32	21.8x30
65	진짜 같은 곤충 종이접기 도감	이티미시 곤충관	이티미시 곤충관	2014	은하수 미디어	112	19x25.7
66	채소학교와 파란머리 토마토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2017	웅진 주니어	40	19x27.4
67	最初の質問 (첫 번째 질문)	오사다 히로시	이세 히데코	2014	천개의 바람	36	22.5x25.7
68	ノラネコぐんだん おすしやさん (초밥이 빙글빙글)	구도 노리코	구도 노리코	2016	책읽는 곰	40	22x22
69	チキンマスク : やっぱりぼくはぼ くでいい (치킨 마스크)	우쓰기 미호	우쓰기 미호	2008	책읽는 곰	32	22.5x21.8
70	ケチャップマン (케첩맨)	스즈키 노리타케	스즈키 노리타케	2018	비룡소	32	22.7x18.3
71	教室はまちがうところだ (틀려도 괜찮아)	미키다 신지	하세가와 토모코	2018	토토북	32	20.9x24.5
72	펭귄남매와 함께 타요 세트	구도 노리코	구도 노리코	2018	책읽는 곰	140	21x18.2
73	そらの100かいいだてのいえ (하늘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이와이 도시오	2017	북뱅크	32	21.6x30.1
74	空とぶライオン(하늘을 나는 사자)	사노 요코	사노 요코	2018	천개의 바람	40	25.5x24.3
75	おこだでませんように (흔나지 않게 해주세요)	구스노코 시게노리	이시이 기요타카	2009	베틀북	32	23x20.8

## 2.2 자료 분석

### 2.2.1 자료 분석 준거

#### 가. 그림책의 장르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 75권의 장르를 분석하기 위해 현은자, 김세희(2005)와 김현희, 박상희(2008)가 사용한 분류 준거를 활용하였다. 이에 그림책의 장르를 크게 핵심 그림책과 논핵심 그림책, 그리고 운문 그림책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장르의 세부 분류 준거를 활용하여 그림책을 분류하였다. 그림책의 장르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lt;그림책 장르 분석 기준&gt;

분류		개념
픽션	짧은 서사가 있는 책	플롯이 단순한 책
	판타지 책	초현실적인 인물이나 사건, 물건이 등장하는 판타지를 내용으로 하는 그림책
	사실주의 책	현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그림책
	옛 이야기 책	기존의 신화, 전설, 우화, 민담을 재화하고 그림을 담아 만든 그림책
	글 없는 그림책	글 없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
논픽션	개념 책	구체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책
	알파벳 책	글자의 순서에 따라 정보를 배열한 책
	수세기 책	수의 순에 따라 내용이 조직된 책
	확인 책	사물의 이름을 가르치는 책
	정보 그림책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그림책
	놀이 책	신체, 역할놀이 등 영아유가 하는 놀이의 형식 및 내용을 담아 만든 책
운문 그림책	전래동요, 시와 같은 운문을 글감으로 하여 그림을 담아 만든 그림책	

## 나. 그림책의 주제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 75권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히로코 사사키(裕子佐々木, 2006)가 『그림책의 심리학』에서 제안한 분석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제 분류는 생활·자립 / 자기형성 / 친구·놀이 / 성격 / 마음 / 가족 / 정보 그림책이다. 히로코 사사키의 분류는 각 주제 영역별로 아주 구체적인 동사나 형용사들을 하위 주제로 제시하고 있어서 유아용 그림책의 주제를 분류하는데 유용하다(김민정 외, 2014). 그림책 주제 분석 기준 및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 &lt;그림책 주제 분석 기준&gt;

주제 분석 준거	하위 주제
생활·자립	앉다, 걷다, 입다, 벗다, 보다, 듣다, 만지다, 냄새 맡다, 맛보다, 먹다, 좋아하고 싫어하다, 잠자다, 혼자서 자다, 일어나다, 목욕하다, 변기에 앉다, 오줌 누다, 이불에 오줌 누다, 손가락을 뺄다, 좋아하는 옷을 가지다, 동물을 돌보다, 식물을 돌보다, 말하다, 읽다, 쓰다, 생각하다, 돋다, 심부름하다, 집을 보다, 정리하다, 아기를 보다, 요리하다, 기다리다. 일하다, 방문하다, 휴파람 불다, 세발자전거를 탄다, 자전거를 탄다, 혼자서 전철을 탄다, 혼자서 여행하다, 헤엄치다, 편지 쓰다, 전화 걸다

자기형성	반항하다, 자기주장을 하다, 자신을 가지다, 자존심을 가지다, 자기를 확인하다, 타인을 인식하다, 열등감을 갖다, 실패하다, 상실하다, 고독해지다, 소모하다, 불안을 느끼다, 질투하다, 좌절하다, 편견을 갖다, 버릇이 생기다, 형제의 출생, 애완동물의 죽음, 젖니가 빠지다, 생일, 이사,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부모의 이혼, 부모의 재혼, 조부모의 죽음, 죽음, 거부, 계모, 꾸중 듣다, 칭찬받다, 길을 잃다, 여행하다, 소년이 되다, 소녀가 되다, 가치관을 가지다, 소망을 가지다, 자라다, 등교를 거부하다, 가출하다, 자기와 대화하다, 자연과 대화하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달, 별을 바라보다, 석양을 바라보다, 구름을 바라보다, 행복한 추억, 불행한 추억
친구·놀이	흉내놀이, 모험놀이, 상상놀이, 혼자서 하는 놀이, 자연에서 하는 놀이, 사계절 놀이, 형제와 놀다, 아빠와 놀다, 엄마와 놀다, 할아버지와 놀다, 할머니와 놀다, 친구와 놀다, 소꿉놀이, 물놀이, 바다와 놀다, 모래놀이, 훑 놀이, 눈 놀이, 바람과 놀다, 비와 놀다, 나무를 가지고 놀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가구를 가지고 놀다, 일용품을 가지고 놀다, 동물과 놀다, 상상의 동물과 놀다, 풍선을 가지고 놀다, 인형을 가지고 놀다, 장갑, 모자, 양말, 우산, 목도리 따위를 가지고 놀다, 목욕탕에서 놀다, 구멍을 파다, 그네를 탄다, 춤추다, 텔레비전을 보다, 파티를 하다, 소풍을 가다, 놀이공원에 가다, 동물원에 가다, 서비스를 보다, 공원에 가다, 전시회에 가다, 산책하다, 우정을 키우다, 싸움을 하다, 친구가 되다, 또래 의식을 키우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성격	용감한, 일을 해내다, 근면한, 충실한, 자기희생, 관대한, 정직한, 친절한, 배려가 있다, 상냥하다, 동물에게 친절하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다, 자긍심이 있다, 호기심이 강하다, 활발한, 낙천적인, 유머가 있다, 재치가 있다, 책임감이 강하다, 사교적인, 조용한, 진지한, 참을성이 있는, 주의 깊은, 어수룩한, 건방진, 욕심쟁이, 게으름뱅이, 자만심, 버릇없는, 짜증스런, 이기적인, 고집이 센, 심술꾸러기, 완고한, 장난스런, 덜렁이, 부끄럼쟁이, 겁이 많은, 의존심이 강한, 싫증을 잘 내는
마음	돕다, 협력하다, 은혜를 갚다, 주다, 선물하다, 감사하다, 예의를 차리다, 자신만만하다, 자만하다, 궁지를 가지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반성하다, 바라다, 감동하다, 사랑하다, 사랑받다, 존경하다, 즐기다, 행복을 느끼다, 찾다, 응석 부리다, 경쟁하다, 약속을 지키다, 웃다, 장난치다, 놀리다, 거짓말하다, 괴롭히다, 험담하다, 못된 일을 꾸미다, 속이다, 흉내 내다, 복수하다, 따돌리다, 따돌림을 당하다, 알랑거리다, 화내다, 원망하다, 도망치다, 허무함을 느끼다, 걱정하다, 비밀을 가지다, 부주의한 일을 하다, 위험한 일을 하다, 불평하다, 오해하다, 마음에 걸리다, 부러워하다, 당황하다, 슬퍼하다, 무서워하다, 부끄러워하다, 상처받다, 심심해하다, 약속을 깨다, 울다
가족	아기, 자매, 형제, 오빠와 여동생, 누나와 남동생, 쌍둥이, 이복형제, 아빠, 엄마, 부성, 모성, 조부(친할아버지), 조모(할머니),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고모), 부자(父子)가정, 모자(母子)가정, 열쇠 아이, 외동이, 부모의 일, 핵가족, 확대가족, 결혼, 부부, 가족, 성교육, 휴가를 보내다, 계절 행사, 크리스마스, 장을 보다, 손님, 좋은 날, 나쁜 날, 특별한 날, 부모의 어린 시절, 나이를 먹다, 주거, 집짓기
정보 그림책	정보 책 형태 중 하나로 이야기보다는 정보와 사실을 담고 있는 책, 사실이 우선, 이야기는 표현기법으로만 쓰이며 픽션은 이야기가 추가 됨

## 2.2.2 그림책 분석 절차

제시된 두 가지 준거에 근거하여 그림책을 분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아교육과 교수 1인, 박사 2인, 석사 1인 총 4인이 75권의 그림책을 주어진 장르준거에 따라 각자 분류하였다. 총 4인의 분류 결과를 수집하여 불일치가 나타난 그림책에 대해서는 토의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4인의 합의를 거쳐 분류 확정하였다. 주제 분류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실행되었다.

#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 유아부분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로 선정된 75권의 그림책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어진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1 일본 그림책 출판 시기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75권의 일본 그림책은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7년간 출판된 작품들이었다. 가장 출판년도가 오래된 그림책은 1991년에 출판된 はじめてのおつかい『이슬이의 첫 심부름』이었으며, 가장 최근에 출판된 그림책은 2018년 올해에 출판된『나비』,『나의 자전거』,『누에콩의 침대』,『도토리마을의 목공소』,『동생이 생긴 너에게』,『바다 100층짜리 집』,『100층짜리 집 숫자카드』,『빼악빼악 첫 캠핑』,『세상에서 가장 예쁜 종이 접기책』,『아이가 좋아하는 종이 오리기』,『아이스크림이 꽁꽁』,『엄마~아!』,『여우랑 줄넘기』,『우당탕탕 야옹이 세트』,『울랄라 채소 유치원 세트』,『주무르고 놀리고』,『케첩맨』,『틀려도 괜찮아』,『펭귄남매와 타요세트』,『하늘을 나는 사자』 등 20권으로 전체 그림책의 26.6%를 차지하였다. 2018년 한 해 동안 출판된 그림책의 수가 다른 어떤 해보다 많았다. 총 27년 동안 출판된 그림책의 편수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출판된 년도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t;일본 그림책의 출판년도별 작품 수&gt;

출판년도		작품 수	백분율(%)
1990년대	1991 ~ 1995	3	4
	1996 ~ 2000	3	4
2000년대	2001 ~ 2005	8	10.6
	2006 ~ 2010	8	10.6
2010년대	2011 ~ 2015	19	25.3
	2016 ~ 2018	34	45.3
합계		75	100.0

총 75권의 일본 그림책을 5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34권(45.3%)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출판되었다. 또한 10년 단위로 그 경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6권(8%)만 출판된 것에 비해 2000년대에는 16권(21.3%)이 출판되었으며, 채 10년이 되지 않는 2010년대에는 53권으로 전체 75권의 71%의 그림책이 출판되었다.

### 3.2 일본 그림책 작가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 75권 중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같은 책이 62권(82.6%)이며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다른 책이 13권(17.3%)이었다. 즉, 한국에 번역된 일본 그림책은 대부분 글과 그림을 동시에 작업한 작가의 작품이 많았다. 글과 그림을 동시에 작업한 작품은 62권이었으나, 작가는 24명이었다. 이는 24명의 작가 중 7명이 2편 이상의 작품을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글과 그림 작가가 따로 있는 작품 13권의 경우 2편 이상의 작품을 집필한 작가는 없었다. 즉,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일본 그림책 75권을 집필한 작가는 총 50명이었으며, 이중 글 그림을 모두 작업한 작가가 24명 글만 집필한 작가가 13명 그림만 그리는 그림 작가 13명이었다.

이들 중 2권 이상의 작품을 집필한 작가는 총 7명이다. 中屋 美和(나카야 미와)작가의 작품이 13권(18%)으로 가장 많았고, 工藤 ノリコ(구도 노리코)작가의 작품이 12권(16%), 宮西 達也(미와니시 타츠야)작가의 작품이 7권(9.3%), 岩井 俊雄(이와이 도시오)작가의 작품이 5권(6.6%), 鈴木 のりたけ(스즈키 노리타케)작가의 작품이 4권(5.3%)이었다. 이들은 유아들에게 ‘색’, ‘모양’, ‘직업’, ‘동물’ 등 사물의 개념과 명칭을 알려주기 위한 ‘개념 책’을 시리즈로 집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宮西 達也(미와니시 타츠야)와 筒井 賴子(쓰쓰이 요리코)는 글과 그림을 함께 작업하기도 하고 글만 작업하기도 하였다. 2작품 이상을 집필한 작가의 이름과 작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lt;2권 이상 집필한 작가&gt;

번호	작가명	권수	작품
1	中屋 美和 (나카야 미와)	13	くれよんのくろくん (까만크레파스), くろくんたちとおえかきえんそく(까만 크레파스와 놀이동산), くろくんとふしきなともだち(까만 크레파스와 요술기차), 나카야 미와 10권세트, そらまめくんのベッド(누에콩의 침대), どんぐりむらのおまわりさん(도토리마을의 경찰관), どんぐりむらのあそびやさん(도토리마을의 놀이가게), どんぐりむらのぼうしやさん (도토리마을의 모자가게), どんぐりむらのだいくさん(도토리마을의 목공소), どんぐりむらのぱんやさん(도토리마을의 빵집), どんぐりむらのほんやさん(도토리마을의 서점), どんぐりむらのどんぐりえん(도토리마을의 유치원), 채소학교와 파란머리토마토
2	工藤 ノリコ (구도 노리코)	12	ノラネコぐんだん きしやぽっぽ(기차가 덜컹덜컹), ノラネコぐんだん そらをとぶ(비행기가 부웅부웅), ノラネコぐんだんパンこうじょう (빵·공장이 들썩 들썩), ピヨピヨハッピーバースデー(빼빼야 생일파티), ピヨピヨスパペマケット(빼빼야 슈퍼마켓), ピヨピヨはじめてのキャンプ(빼빼야 첫 캠핑), ピヨピヨメリクリスマス (빼빼야 크리스마스), とけいのほん(I)(시계 그림책 1), ノラネコぐんだんアイスのくに(아이스크림이 꽁꽁), 우당탕탕 야옹이 세트, ノラネコぐんだん おすしやさん(초밥이 빙글빙글), 펭귄남매와 함께 타요 세트
3	宮西 達也 (미와니시 타츠야)	7	おまえうまそうちだな(고녀석 맛있겠다), 고녀석 맛있겠다 12세트, メリクリスマスおおかみさん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밀하면 힘이 세지는 말, しげなタネやさん (신기한 씨앗 가게), ふしきなカサやさん(신기한 우산가게), オオカミグ-のはずかしいひみつ(엄마~아!), おかあさんだいすきだよ(엄마가 정말 좋아요)
4	岩井 俊雄 (이와이 도시오)	5	うみの100ヵり いたてのいえ(바다 100층 짜리집), 100ヵり いたてのいえ(100층짜리 집), 100층짜리 집 숫자카드, ちか100ヵり いたてのいえ(지하 100층 짜리 집), そらの100ヵり いたてのいえ(하늘 100층짜리 집)

5	鈴木 のりたけ (스즈키 노리타케)	4	ぼくのおふろ(어떤 목욕탕이 좋아), ぼくのふとん(어떤 이불이 좋아), ぼくのトイレ(어떤 화장실이 좋아), ケチャップマン (케첩맨)
6	佐野 洋子 (사노요코)	2	100万回生きたねこ(100만번 산 고양이), 空とぶライオン (하늘을 나는 사자)
7	林 明子 (하야시 아키코)	2	おつきさまこんばんは(달님 안녕), 달님안녕 시리즈 보드북 세트

또 그림책 작가 중 多田 ヒロシ(다다 히로시)는 りんごがドスン(사과가 쿵)으로 岩井 俊雄(이와이 도시오)는 100かゝだてのいえ(100층 짜리 집)으로 일본 도서관 협회 선정 상을 수상하였고 上野 紀子(우에노 노리코)는 ねずみくんのチョッキ(그건 내 조끼)로 고단샤 출판문학상과 일본 후생성 아동복지문화 장려상, 뉴본상을 수상하였다.

### 3.3 일본 그림책 장르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 75권의 장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 그림책 장르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권수	백분율(%)
픽션	짧은 서사가 있는 책	37	49.3
	판타지 책	4	5.3
	사실주의 책	17	22.6
	옛 이야기 책	1	1.3
	글 없는 그림책	0	0.0
	계	59	78.6
논픽션	개념 책	2	2.6
	알파벳 책	0	0.0
	수세기 책	6	8.0
	확인 책	0	0.0
	정보 그림책	1	1.3
	놀이 책	6	8.0
	계	15	20.0
운문 그림책		1	1.3
총계		75	100.0

75권의 일본 그림책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핵심 그림책이 59권(7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논픽션 그림책이 15권(20%), 운문 그림책이 1권(1.3%)이었다. 핵심 그림책 중에서는 ‘짧은 서사가 있는 그림책’이 37권(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실주의 책’이 17권(22.6%)로 많았다. 실제로 이 두 장르의 작품이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일본 그림책은 ‘짧은 서사가 있는 책’과 ‘사실주의 책’임을 알 수 있다. 논픽션 그림책에서는 수세기 책 6권(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岩井 俊雄(이와이 도시오)의 100층짜리 집 시리즈는 다양한 장소의 동물 친구들과 숫자를 연결하여 유아가 쉽게 숫자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게 소개된 그림책이다.

### 3.4 일본 그림책 주제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 75권 중 그림책 주제를 히로코 사사키(裕子佐々木, 2006)의 분류에 따라 7개의 주제 ① 생활·자립 ② 자아형성 ③ 친구·놀이 ④ 성격 ⑤ 마음 ⑥ 가족 ⑦ 정보 그림책 ⑧ 놀이 책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 그림책 주제별 분류>

	권수	백분율(%)
생활·자립	18	24.0
자아형성	10	13.3
친구·놀이	14	18.6
성격	0	0.0
마음(정서)	6	8.0
가족	12	16.0
정보그림책	6	8.0
놀이책	9	12.0
합계	75	100.0

그림책 주제에 관한 분석 결과 ‘생활·자립’ 주제인 그림책이 18권(24%)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놀이’가 14권(18.6%), ‘가족’ 관련 주제의 그림책이 12권(16%), ‘자아형성’ 관련 그림책이 10권(13.3%)이었다. 총 8가지의 분류 주제 중 ‘성격’ 관련 주제의 그림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工藤 ノリコ(구도 노리코)의 『우당탕탕 야옹이 세트』는 유아들의 일상을 의인화된 동물이 주인공인 만든 그림책으로 생활·자립 주제의 전형적인 예라 볼 수 있으며, 中屋 美和(나카야

미와)의 『도토리마을의 경찰관』, 『도토리 마을의 목공소』, 『도토리 마을의 서점』, 『도토리 마을의 유치원』은 도토리 마을을 통해서 직업을 소개해 주는 정보 그림책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성격을 다루는 그림책은 그림책의 특성 상 한정된 지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특징으로 인물의 성격을 주제로 삼아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나오며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그림책을 분석하여 일본 번역 그림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선정된 유아부분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목록을 수집하고 그 중 일본 도서를 추출하여 최종 75권의 그림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75권의 그림책을 시기별, 작가별, 장르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이에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그림책에 대한 출판 증가의 경향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그림책에 대한 출판이 늘어나고 있다. 1990년 이후 방문판매 위주의 유아용 도서 판매가 서점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출판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 출판에 주력하던 출판사들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출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에서 유아용 그림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 그림책 작가와 작품이 부족하여 외국 그림책의 출판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를 외국 그림책은 주로 영·미권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1998년 일본 문화에 대한 문호개방이 시작되기 전 시기로 보여지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동안 출판된 그림책이 단지 6권이라는 점은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1998년 문호개방 이후 일본책의 번역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특히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3년 동안 27년 동안 소개된 일본 그림책의 45.3%가 출간되었다는 것은 주목해볼 사실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의 경향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영미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번역 작업이 다른 언어권과 문화권으로 확장되면서 일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언어권의 출판물에 비해 일본어 번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도 향후 유아일본 그림책 출판이 더욱 활발해 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일본 그림책 중 주로 생활동화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선호된 그림책을

장르를 살펴본 결과 핵심이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짧은 서사가 있는 그림책’이 49.3%이었으며, 주제별로 살펴본 결과 ‘생활·자립’(24%), ‘친구·놀이’(18.6%), ‘가족’(16.0%)과 관련된 주제가 전체의 5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은 유아의 일상과 관련된 소재의 간단한 구조의 이야기 그림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그림책이나 개념책 등은 ‘색’, ‘모양’, ‘동물’, ‘사물’ 등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책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뿐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책들이다. 이러한 책들은 번역과 출판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들은 대부분 유아의 일상의 삶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책들이었다.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는 책들은 그 사회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맥락과 정서를 공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아의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한 그림책들이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사실이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서로 다른 점을 부각하는 국가 간 역사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적 동질성과 문화와 외모의 유사성 등 다른 대륙과 문화권과 비교할 수 없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없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상호교류는 더욱 확대되어갈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출판된 일본 그림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림책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유아 그림책 판매시장의 동향 속에서 일본 그림책의 출판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국내 작가의 그림책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번역서를 함께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전체적인 그림책 출판 경향성 안에서 일본 그림책의 출판 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동질성과 근접성을 고려할 때, 한국 그림책의 일본 출판 동향도 추후 진행함으로서 두 국가의 유아문학의 교류와 경향을 파악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문희, 이혜상(1998)『아동문학교육』학지사  
 강민정(2013)『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 활동을 위한 부모지원 실행연구』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고선주(2011)「번역 그림책에 반영된 시대문화」『어린이문화교육연구』12(1), pp.113-136  
 공인숙 외(2013)『아동문학』양서원  
 김경연 외(2006)『어린이문학과 번역』『창비어린이』4(1), pp.7-41  
 김명순(2002)『한국조기교육과 과제: 조기교육의 상업화(학습지, 아동도서 및 놀잇감을 중심으로)』『한국아동

- 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83-103
- 김미정(2016)『상업화된 유아 독서 프로그램의 그림책과 연계활동 분석』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외(2014)『한국 스테디셀러 그림책의 특징』『어린이문학교육연구』15(3), pp.141-163
- 김영주(1998)『전래동화와 창작동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비교』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원 외(2011)『영아문학교육 프로그램』창지사
- 김현희, 박상희(2008)『유아 문학 이론과 적용』학지사
- 대한출판문화협회(2012)『2012년 출판통계』
- 대한출판문화협회(2016). <http://www.kpa21.or.kr>에서 2018년 9월 1일 인출.
- 문성주(2012)『아동문학 번역에 있어서의 번역전략: 미야자와 겐지 작품을 중심으로』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 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쓰이 다다시(1990)『어린이 그림책의 세계』이상금(역), 샘터사
- 박세은(2013)『한국에 있어서 일본 동화 번역에 관한 연구』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형(2007)『한국 아동문학의 외국번역에 있어 자국화와 이국화·고양이학교』영역본 사례 연구-『동화와 번역』제13권
- 오연수, 심향분(2018)『엄마 배 속에서 듣고 품속에서 듣는 그림책』창지사
- 이경우(1996)『총체적 언어』창지사
- 이행정(2011)『일한 아동문학번역의 오류 분석』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2017)『인터넷 서점과 그림책 전문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영어 그림책의 목록과 영어 그림책의 목록과 특징 분석』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해연(2007)『그림책과 그림책 읽어주기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활용』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정은(2002)『그림책 출판 현황: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사단법인 어린이 도서연구회 2002년 정기세미나 자료집』
- 한국언론연구원(1993)『매스컴대사전』한국언론연구원
- 현은자, 김세희(2005)『그림책의 이해1』사계절
- 후지모토 지도세(2011)『일본 창작동화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 번역서에서 본 언어표현문화의 차이』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히로코 사사키(2006)『그림책의 심리학』(고향옥, 이경옥 역), 리교육

논문투고일 : 2019년 03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19년 05월 12일  
2차 수정일 : 2019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5월 17일

## &lt;要旨&gt;

## 한국에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 현황 분석

전윤숙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 그림책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대 매출량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온라인 서점 세 곳(교보문고, 알라딘, 예스 24)에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로 선정된 유아용 도서 중 일본작기에 의해 집필된 작품 75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선정된 75권의 일본 그림책은 출판년도, 작가, 장르, 주제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그림책은 1991년을 시작으로 그 출판된 그림책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가장 많은 그림책이 번역 출판되었다. 둘째, 총 75권을 집필한 작가는 총 24명 이었으며, 이 중 7명의 작가가 2편 이상의 작품을 집필하였다. 셋째,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그림책 75권 중 78.6%가 퍽션 이었으며 주로 ‘짧은 서사가 있는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었다. 넷째, 주제별로는 ‘생활·자립’(24%), ‘친구·놀이’(18.6%), ‘가족’(16.0%)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58.6%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일본의 그림책은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Japanese Picture Books in Korea

*Jun, Yun-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of picture books in Japan which is preferred in Korea. To that end, we collected a list of books selected by bestsellers and steady-sellers from January through December 2018 at three online bookstores in Korea (Kyobo Book Center, Aladdin, and Yes 24). Of these, 75 works written by Japanese author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final selection of 75 books in Japan was classified into year of publication, author, genre, and subject.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Japanese picture books have been increasing in number since 1991, and the largest number of picture books were translated in 2018. Second, there were 24 writers who wrote 75 books, and 7 of them wrote more than two works. Third, 78.6% of the 75 books that are preferred in Korea were fiction, and they mainly had the form of ‘story with short narrative’. Fourth, 58.6% of them were related to ‘life·independence’ (24%), ‘friends and play’ (18.6%) and ‘family’ (16.0%). As a result, the number of picture books in Japan, which are preferred in Korea, is gradually increasing, and many contents related to the everyday life of Japanese young children are predominant.